

〈기조강연〉

종교와 심성교육

이 계 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I. 머리에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춘계 세미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계의 심성교육을 폭 넓게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종교계의 심성교육의 이론과 방법적 원리를 공교육의 심성교육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탐색해 보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주제 발표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계의 심성교육의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방법적인 원리와 현황 등등을 소상하게 발표해 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계의 심성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 보고, 종교와 심성교육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으로써 이 세미나의 기조 강연을 대신하고자 한다.

종교라는 말은 원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적 용어라고 한다. 그러나 19세기말 일본의 명치시대에 'religion'의 영역(英譯)으로써 이 말이 쓰임에 따라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영어의 'religion'란 용어는 라틴어의 'religio'에서 유래한 용어으로써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의 감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의례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고대 유럽에서는 교의와 의례를 갖춘 종교 집단을 지

칭하는 의미로 쓰였으며, 중세에는 비속적인 수도원 생활까지도 지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종교란 말은 유교, 불교, 기독교 등등의 개별 종교들을 총칭하는 유(類)개념이라고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704). 따라서 종교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교의와 의례를 갖춘 신앙 체계와 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그리고 심성이란 자전적 정의에 의하면 불교의 용어로서는 ‘변치 않는 참된 마음’을 의미하며, 유가(儒家)에서는 ‘심성정(心性情)’의 준말로써 마음과 성정, 즉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심성이란 인간으로서 ‘타고난 참된 마음씨’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개 종교계의 심성교육이란 그들의 교리에 근거하여 그들이 이상적으로 염원하는 인간의 참된 마음씨를 함양하는 교육이라 하겠으며, 일상적인 의미로는 지식교육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참된 마음씨를 함양하는 교육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종교계의 심성교육과 교육계의 인성교육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삶다운 삶을 구현해 나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해 내는 의도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종교계의 심성교육은 특정의 교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아닌게 아니라 현대와 같이 제정교(祭政敎)가 분화하기 이전에는 종교가 교육이고, 교육이 종교였으며, 그러한 생활 자체가 바로 삶이었다. 그러므로 제정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인지가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이 늘어나고, 종교에서 정치가 분화되면서 교육도 종교에서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교육의 내용도 실용적인 지식으로 대체되면서 현대에 있어서는 교육의 본질이 지식인을 기르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자(사람다운 사람)를 양성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다.

유교를 종교로 본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서야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갑오경장을 통해 유가의 경전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인 교육이 실용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한 신교육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종교와 교육이 분화되기 이전의 전통 교육이 유가의 경전을 중심으로 한 심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하면 갑오 교육개혁 이후 지난 100여년 간의 교육은 실용적인 지식교육에 초

점이 맞추어진 교육이다. 이런 안목에서 보면 인격 중심의 전통교육이 지식 중심의 신교육으로 개혁 된지 100년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저간에 우리는 엄청난 사회 변화를 체험하였다. 갑오개혁 직후 일제에 의해 35년간 나라를 잃었고, 광복 이후엔 삶의 체제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자본주의의 경쟁 사회로 탈바꿈을 하였으며, 50년대 초반에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쟁의 민족적 비극을 체험하였고, 그로 인한 인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국토는 회복이 불가능하리 만큼 초토화 되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기치아래 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70년도 후반에는 우리 사회가 근대 산업 사회로 발전하였고, 국민소득이 높아져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의 교육력이 기여한 바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배운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고학력의 사회가 되면 될 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배리적인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기이한 현상의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돌이켜 보면 지난 100여 년 간의 지식 중심의 우리 교육도 큰 원인이라 하겠다. 5. 31 교육 개혁(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5)이 ‘인간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5. 31 교육 개혁이 비록 인간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지라도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의 이론적인 근거와 방법적인 원리에 대해선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제정교가 분리된 민주 사회의 공교육에서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성을 함양해야 할지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런 형편에 종교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성교육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우리 사회의 역설적인 사회 현상을 치유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멀리는 유사 이전부터 축적해 온 종교계의 심성교육의 이론적 근거와 방법적인 원리는 우리 인류의 심성교육을 위한 귀중한 문화 유산이요, 자산이다. 그러므로 종교계의 심성교육의 이론과 실체는 공교육에서의 보편적인 인성교육의 이론을 정립하고, 교육 방법을 창출해 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의 여러 학문과도 관련을 맺어야 한다. 그러한 학문적인 뒷받침 속에서 종교계나 교육계의 심성교육은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발전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종교계나 교육계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 내어 삶다운 삶을 실현해 나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인간의 심성의 발달과 성장에 관련된 현대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는 종교계의 심성교육의 이론과 방법적 원리의 타당성을 방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교계와 교육계의 심성교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 하나는 사람됨의 과정에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격의 확립과 지혜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다.

II. 종교적인 가르침과 사람됨의 관련

소크라테스(Socrates)에 의하면 인간을 탁월하게 인간답게 해 주는 요소는 덕(德: arete)이다. 현대적인 용어로 덕성(德性: morality)이다. 종교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인(仁)이요, 자비요, 사랑이다. 이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요소는 지성이 아니라 착한 인간의 심성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느 가르침에 있어서나 인간을 탁월하게 인간답게 해 주는 이들 덕성을 함양하여 전일한 인격을 확립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삶다운 삶을 누리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가르침에서나 그들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덕성을 함양하여 전일한 인격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목표이다. 유가(儒家)에서는 인(仁)으로 일관지한 인격을 확립한 사람이 군자이고, 불가(佛家)에서는 바로 그 자신이 자비의 화신인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표이고, 기가(基家)에서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인격을 확립한 사람이 중생(重生)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느 종교의 가르침에서나 그들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덕성을 함양하여 인격을 확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가에서는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때로는 ‘여반장(如反掌)’이라고도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인격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이리라.

유가에서는 살신성인하고 극기복례하는 고난을 통해서, 불가에서는 백척간두를 진일보하는 위기를 통하여, 기가에서는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보면 루소(J. Rousseau)의 말대로 인간은 두번 태어나는 존재이다. 한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고, 다른 한번은 살기 위해서 인격으로서 태어나는 존재이다. 그리고 종교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극기복례나 살신성인, 번뇌의 망상이나 원죄, 또는 마귀의 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착한 심성만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의 발현을 가로막는 악한 심성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이다. 즉 양극적인 경향성을 모두 갖추고 태어나는 동봉(同封)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착한 심성(덕성)으로 전일한 인격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심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 인성심리학(psychology of personality)의 모든 이론이 이 양극적인 심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어 있는 것을 본다거나(Hall, C. S. · Lindzey, G., 1970) 우리 자신의 심성을 성찰해 보면 인간의 마음은 서로 갈등/상반하는 양극적인 심성(경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착한 심성으로 일관성 있는 인격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엘리아데(M. Eliade)가 도식화한 ‘고난-죽음-재생’이라는 성숙변증법적(聖俗辨證法的)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Eliade, M., 이동하 역, 1983). 발달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간의 심성발달은 성숙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 질적인 발달을 해 간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피아제(J. Piaget)의 연구 결과를 보면(Piaget, J. · Inhelder, B., 김재은 역, 1972 ; Flavell, J. H., 김재은 · 정명숙 공역, 1982) 인간의 정신 발달은 신체의 발달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의 발달은 미분화의 상태에서 양적으로 기능적으로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면서 점진적, 지속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정신의 발달은 순차적이긴 하지만 질적인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단속적, 비약적, 불연속적으로 발달해 간다. 그러므로 신체의 발달이 무우자라듯 한다고 하면 정신의 발달은 마디져 자라나는 대나무와 같다.

정신의 내용을 지정의(知情意)로 분류하여 성장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지(知)의 발달은 주관성에서 객관화의 향성(向性)을 따라, 정(情)은 이기/자애성에서 이타/애타화의 향성을 따라, 의(意)는 타율성에서 자율화의 향성을 따라 성장/발달해 간다. 이러한 정신 발달의 향성모형(向性模型)에 따르면 정신 발달의 최종 상태는 지적으로는 의식의 주체인 나를 객관화한 상태이고, 정적으로는 이타/애타화된 상태이며, 의적(意的)으로는 대자유한 자율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정신 발달의 최종 상태는 '객관적으로 이타/애타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누리는 상태'라고 하겠다(이계학, 1991). 그러므로 그는 가히 사랑의 화신이며, 자비의 화신이고, 인(仁)으로 일관지한 삶을 누리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요,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인격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신 발달의 향성모형에 따르면 정신 발달의 최종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선 주관적이고, 이기적, 자애적이고, 타율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이타/애타적이며, 자율적인 삶의 세계관으로 입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덕성의 함양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질적으로 다른 세계로 입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두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이다. 그러므로 질적으로 다른 이 두 세계는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주관-객관', '이기-이타', '자애-타애', '자율-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상반하는 배타적인 세계이요, 이질적인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두꺼운 장벽으로 가로 막혀 있는 세계이다. 그것은 마치 음속의 세계와 초음속의 세계처럼 장벽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이다. 따라서 질(質)이 서로 다른 이 두 세계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러므로 질이 다른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의 이입(移入)은 음속의 세계에서 초음속의 세계로 이입하는 과정처럼 돌파/돌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인격이 최종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은 돌파/돌입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Bollnow, O. F., 이규호 역, 1967: 47-48). 그러므로 인격 확립의 최종의 과정은 음속의 세계에서 초음속의 세계로의 돌파/돌입 과정과 같이 찰나적인 돌파에서 겪는 충격과 놀람이 뒤따르게 된다. 바로 그 체험이 의식적으로는 '깨달음'이요, 시각적으로는 섬광(閃光)이며, 음성적으로는 굉음(轟音)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정신 상태의 질적인 전환은 심리적으로 갈등/상반하는 상태를 극복할 때 비로서 이루어지는 변증법적인 전환이요, 정신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순간에 박살이나고 탈자기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의 개시이며, 구조적으로는 갈등/상반하는 두 개의 대뇌신경의 회로가 형성했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원통한 대뇌신경 회로가 형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 표상이 원불교의 동그라미이고, 광배가 아난가 한다. 그러므로 정신의 발달 단계에서는 어느 정신의 발달 단계에서나 ‘고난-죽음-재생’이라는 성숙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덕성을 함양하여 지정의가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원통한 인격을 확립하기 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려운 ‘고난-죽음-재생’이라는 성숙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비로서 이해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 입신(立身), 신민(新民)이나 활연관통(豁然貫通),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깨달음’, 기가(基家)에서 말하는 중생(重生)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룩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극기복례하고 살신성인하는 과정이고, 백척간두를 진일보하는 과정이며, 파울러스(T. Paulus)의 이야기처럼 애벌레가 나비로 환생하는 고난의 과정이다(Paulus, Trina, 이영무·홍돌로레스 공역, 1978). 이것을 보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에서 당면하는 쑥처럼 쓰고, 마늘처럼 맵고, 동굴처럼 암울한 고난을 극복하고 3×7일만에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신한 곰녀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인당수에 자신의 전존재를 바쳐 보잘 것 없는 심봉사의 딸이 왕비와 같은 인격으로 입신(立身)하는 이야기도 다른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덕성으로 전일한 인격을 확립한다는 것, 쉬운 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물격반 인격반의 반쪽이의 상태로 상대 세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그것을 넘나들면서 갈등/상반하는 고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덕성으로 일관하는 인격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극기복례하고 살신성인하는 각오를 해야하고, 백척간두를 진일보하는 열정과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성을 상실한 학교교육에서의 인격교육이 왜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심성교육의 강점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Ⅲ. 인격의 확립과 지혜의 관련

정신 발달의 향성 모형에 따르면 지와 정과 의의 발달도 기본적으로 성숙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인격 확립의 과정에 따르면 인간은 지정을 통합하여 질적으로 다른 인격을 확립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격반 물격반의 반쪽이로 상대 세계를 넘나들면서 갈등/상반하는 고난 속에서 한 삶을 그럭저럭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인격을 확립하여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누릴 것인지를 결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그것은 백척간두를 진일보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이다. 그래서 올곡은 배움(학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立志)임을 밝히고, 사람다운 사람의 전범인 요와 순임금을 빌어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사람됨에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격몽요결, 입지장). 이러한 결단에 기반이 되는 것이 인격 확립의 과정에 대한 믿음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정성이다. 믿음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안되고, 열정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인격확립에 대한 믿음과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정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立志의 양대 지주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지는 인격 확립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평범성에 머물러는 안일함에서 사람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을 신비주의로 폄하하고,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물인격적(物人格的)인 사람됨의 상태를 표준화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고, 위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양적인 표준이지 질적인 표준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기만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자아의 성장과 발달을 논한 에릭슨(E. Erikson)에 의하면(Erikson, Erik, 1982) 인간은 8단계에 걸쳐 50세 이후에까지 변증법적으로 발달해 간다. 영아기에는 신뢰감-불신감, 유아기에는 자율감-수치감, 오락기에는 주도감-죄악감, 학동기에는 근면감-열등감, 청년기에는 정체감-확산감, 성년전기에는 친화감-고립감, 성년 후기에는 생식감-정체감, 노년기에는 절망감-통합감을 변증법적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인격을 확립해 간다. 그리고 노년기를 맞아 자아를 통합시켰을 때 탁월한 지혜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매스로우(A. Maslow)의 성장동기이론에 따르면(Maslow, Abraham H., 1970) 인간은 성장하려는 선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선천적인 경향성을 충분히 실현해 나갈 때 건전한 성향을 유지해 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노이로제나 정신병과 같은 병적인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의 인격성장이론의 3각모형에 따르면 생리적인 욕구 => 안전에 대한 욕구 => 애정에 대한 욕구 => 인정에 대한 욕구 => 인지적, 심미적인 욕구가 나타나며, 인지적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인격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격을 실현한 사람들은 절정경험(絶頂經驗)을 체험하게 되며, 그들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심원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유머스럽고, 지혜로운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프롬(Erich Fromm)은 인간은 태어 나면서부터 두 가지의 선천적인 경향성, 즉 하나는 빛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성과 하나는 어둠으로 퇴행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갈팡질팡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삶에 대한 인간의 정위(定位: orientation)를 삶에 대한 '사랑과 죽음', '성장과 쇠퇴'의 양극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쇠퇴의 증세군과 성장의 증세군으로 나누어 전진과 퇴행의 차원에서 심리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다(Fromm, Erich, 1980).

이상의 논지를 종합해 보면 인간은 인간으로 성장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갈등 상반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변증법적으로 극복하여 인격적인 성장을 해 나가면 인격을 확립하게 되고, 지혜를 획득하게 되지만 불연(不然)이면 정체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심리적으로 병적인 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 댓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라나는 나무가 장애가 없으면 곧게 자라지만 장애를 받으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틀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제 지옥 제가 만들어 산다는 이야기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은 인격 확립의 최종 단계에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사람됨을 외면하면 외면한 만큼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처럼 우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체험을 통해 사람 노릇을 한만큼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람노릇을 못하는 것보다 더 뼈저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절

감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고, 인간으로서의 행복의 조건이라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인격을 확립시켜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위의 논의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지만 인간은 인격을 확립할 때 ‘탁월한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덕성을 함양하여 일이관지한 인격을 확립할 때 탁월한 지혜를 획득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불가의 가르침에는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불경의 심장이라 일컫는 반야심경(「般若心經」)은 600부의 대반야경의 정수를 260자로 간추린 것이라고 한다. 이 경전의 원명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다. ‘마하’는 뛰어나게 탁월한 것을 의미하는 범어이다. 그리고 ‘반야’는 지혜란 말이고, ‘바라밀다’는 ‘저 언덕을 건너다’, ‘저 언덕에 이르다’는 뜻이다. ‘심경’은 마음의 경전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란 말은 ‘마음을 수련하여 탁월한 지혜를 획득하는 경전’이란 말이다. 따라서 이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기만 하면 탁월한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 임제선사(臨濟禪師)에 따르면 부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위진인(無位真人: 차별이 없는 참사람)이다(아나기다세이잔. 一指 옮김, 1990: 66-67).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란 엄청난 사실을 깨닫기만하면 탁월한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 이것을 보면 불가의 가르침은 지극히 철학적이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는 고대 회랍사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바, 철학(philosophy)이란 말 자체가 지식의 사랑(philia)이 아니라 지혜(sophia)를 사랑하는 학문이란 뜻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철학자는 지혜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였으며(플라톤, 1967: 69), 그는 또한 누가 참된 철학자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진리 전체를 애호하는 사람’이라 하였다(플라톤, 1967: 70). 그들이 德의 교육에 그토록 관심을 기우린 까닭은 사람을 탁월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해 주는 요소가 덕이고, 덕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었다. 덕이 바로 지혜란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知: episteme)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 유익한 것은 결국 지혜로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의 주장은 유익한 것이어야 만 한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의 주장은 덕이 지혜라야만 한다(플라톤, 박양운 역, 1982: 190-191).

덕이 바로 지혜라는 소크라테스의 덕론은 플라톤이 계승하여 ‘이데아론’으로 발전한다. 플라톤에 의하면 무지의 상태에서 진지(眞知)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4개의 지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 환각지, 소신지, 매개지, 직접지의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네번째의 단계에 와서는 진지의 상태, 즉 지혜의 상태에 이르러 덕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최종의 단계는 천신만고 끝에 도달하게 되는 직관지의 단계로 순수사유의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직접 바라보게 된 대상들이 진짜 사물들이라 하였다(박종현, 1983: 25-26).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위의 설명에 따르면 최고의 선, 즉 ‘지선(至善)’은 지식과 진실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지선의 상태에서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은 유가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대학(大學)의 첫머리에 “대인의 도는 명덕(明德)을 밝히는데 있고, 신민(新民)에 있으며, 지선(至善)에 머무르는데 있다”. 여기서 명덕이란 허령지각으로서 지혜를 의미한다(성백효 역주: 23). 그리고 지혜와 지선과 신민은 동격의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와 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덕성을 함양하여 ‘지선에 머무르면 신민이 되고, 신민이 되면 탁월한 지혜를 획득하여 대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가르침으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맹자(孟子)에는 ‘불인부지(不仁不智)’란 말이 나오는데 주석에는 이불인고 ‘부지 부지고 부지에의지소재 (以不仁故 不智, 不智故 不知禮義之所在)’라 하였다(김혁제 교열, 1984: 91). 이것 역시 인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논어(「論語」)에는 인(仁)으로 일이관지한 인격을 확립하면 양지양능(良知良能)의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 귀절이 있다.

공자 : 賜(자공)야 !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또 모두 그것들을 (외우고 있어서) 아는 것으로 알겠지?

자공 : 네. 았그렇습니까?

공자 : 안 그렇다. 나는 오로지 (仁으로) 일이관지(一以貫之)했을 따름이다(論語. 里仁 15).¹⁾

1) “子曰 賜也 女以予 爲多學而識之者與 對曰 然 非與 曰 非也 予 一以貫之”

이것을 보면 덕성을 함양하여 인으로 일관지한 인격을 확립하면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양지양능의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맹자의 양지양능설은 왕양명의 심학(心學)으로 이어져 치량지설(致良知說)로 발전한다. 치양지설은 마음의 수양방법이다, 즉 덕성을 함양하는 방법적 원리이다. 그리고 성리학을 체계화한 주자에게 있어서는 인격교육의 방법론과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방법론으로 거경궁리(居敬窮理)가 강조되고 있는 바, 경(敬)의 철학을 확립한 퇴계에 의하면 ‘경’은 마음의 주인으로서(성학십도, 대학경; 심학도)²⁾ ‘경’에 거하면 지혜가 밝아져 이(理)를 궁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近思錄, 격물궁리편 11).³⁾ 그리하여 인격교육의 방법론과 ‘이’를 궁구하는 학문의 방법론으로 지경법(持敬法)을 강조했다. 퇴계의 설명에 따르면 ‘경’이란 경외하는 마음(두려움)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성학십도, 속홍야매잠도),⁴⁾ 넓은 의미로 지경법이란 덕성을 수양하는 방법론이다.

기가(基家)의 지혜론은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간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가의 지혜서인 「잠언」과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지혜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수양을 통하여 ‘솔로몬’과 같은 탁월한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면 ‘덕성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덕성을 함양하여 인격을 확립하면 탁월한 지혜를 획득하게 되며, 진지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혜안을 얻게 되어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문을 하는 옛 선비들이 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인격수양에 몰두했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를 뛰어 넘어 현대의 인격성장에 관련된 이론과 부합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 제4심리학(초월심리학)이 동양사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일리가 있다.

2) “敬者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 “一身之主宰 而敬又一心之主宰也”

3) “只是致知 若智識明 則力量自進”

4) “以下五圖 原於心性 而要在勉日用崇敬畏”

IV. 맺음에

종교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기회에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여려해 동안 화두로 삼아온 인격교육에 관련한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관견(管見)을 피력해 보았다. 좁은 지면에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재주가 없는 사람이 축소시키다 보니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이 느낀다. 그러나 여러 종교교육의 전문가들과의 폭 넓은 논의를 통하여 좀 더 보편성 있는 인격교육의 원리로서 발전시켜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탄없는 질정(叱正)을 바란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은 서양사람들에게서 다시 역으로 수입하는 부끄러운 학문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 21세기는 서양에서 꾸어온 학문의 빛을 우리가 झा아야 할 때이다.

〈 참 고 문 헌 〉

격몽요결.

近思錄

論語

성학십도

김혁제(교열)(1984). 원본맹자집주전. 서울: 명문당.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5.31).

박종현(1983). 플라톤의 생애와 사상. 국가·파이돈. 서울: 휘문출판사.

성백효(역주), 현토(완역). 대학 중용집주 「대학」.

야나기다세이잔. 一指(율김)(1990). 임제록·상당. 서울: 고려원. 1990

이계학(1991). 인격교육론. 서울 : 성원사.

플라톤. 사회과학연구회(편역)(1967). 국가론 애론. 서울: 신조문화사.

플라톤. 박양운(역)(1982). 플라톤(하).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20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Bollnow, O. F. 이규호(역)(1967). 실존철학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Erikson, Erik(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 W.W. Noton & Company.

Eliade, M. 이동하(역)(1983). 종교의 본질: 聖과 俗. 서울: 학민사.

Flavell, J. H. 김재은 · 정명숙(공역)(1982). 認知發達論. 서울: 정민사.

Fromm, Erich(1980). *The heart of man - Its genius for good & evil*. New York: Harper& Row. Publishers.

Hall, C. S. & Lindzey, G.(1970). *Theories of personality*(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Maslow, Abraham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secon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Paulus, Trina. 이영무 · 홍들로레스(공역)(1978). 꽃들에게 희망을. 왜관 : 분도출판사.

Piaget, J. & Inhelder, B. 김재은(역)(1972). 삿아제의 知的發達論. 서울: 익문사.

Religion and Human Nature Education

Lee, Keay Har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 Introduction

The first purpose of this seminar is to widely understand the human nature education(HNE: 心性教育) of Korean religious circles for our adolescents. Its next purpose is to search the possibility that generalizes the theories and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the religious circles into the public education based HNE. It is hoped that other presenters of this conference will announce theoretical grounds, detailed aims, methodological principles, and situations on HNE. Therefore this paper searches macroscopically for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the HNE of the religious circles for our adolescents, and also discusses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HNE.

It is said that the word religion is originally the Buddhistic term that means 'the teaching becoming to a root'. But in the end of 19th century, in the Meiji(明治) era in Japan, the English word religion was translated into JongKyo(宗教), and it has been accepted as a generalized term since that. The English word religion was derived from the Latin word religio, which means the reverence emotion attached to the supernatural being, the ritual action expressing it, and so forth. Thus it was used to mean the religious group provided with a doctrine and a ceremony in the ancient Europe, including the life of non-vulgar monastery in the mediaeval ages. However it is said

that the term religion which is generously used is the genus concept indicating generally the individual religion of Confucianism, Buddhism, Christianity and so on(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d., 1991: 704). Therefore religion is the concept meaning generally the religious system and organization with a doctrine and a ceremony for the supernatural being. And in a dictionary definition, 'human nature(心性)' is 'unchangeable and true mind' as a Buddhistic term, and is the abbreviation of 'human nature and feeling(心性情)' in Confucianism, which is the concept meaning the mind and feeling that is an endowed disposition. So it means the disposition that is endowed and true as a human being. Thus HNE(心性教育) of each religious circle is based on its doctrine, and is the thing that fosters the true disposition of ideally desired human, and in the meaning of daily life is the education promoting true mind in contrast with intellectual knowledge education.

According to the above, the difference is not found between the HNE(心性教育) of each religious circle and that of education circle, because education is essentially the designed activity fostering the worthy man who pursuits worthy life. If there is any difference, it may be in the point that HNE of each religion circle is based on its doctrine. Before 'Church and State' and education are divided like nowadays, religion was much the same as education, and the very reverse was true. So it was impossible to consider divided 'Church and State'. However as human intelligence and natural science develop,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 also increase. When 'Church and State' was respectively divided and specialized, education was separated from religion. And also as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more substituted with practical knowledge, in these days we have reached the situation in which we can not estimate what the essence of education is: whether the thing which teaches the learned man or what fosters the human-natured man.

If Confucianism is a religion, strictly speaking, the Koreans must have experienced the divided Church and State in the end of ChoSun-dynasty that was based upon Neo-Confucianistic ideology of SungRiHark(性理學). Through GahBoKyungJang(甲午更張),

our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that had been centered to confucianistic classical books was reformed into neo-education(新教育) that was emphasized on practical knowledge. If our traditional education is focused upon HNE emphasizing confucianistic classical books before 'Church and State' and education was divided, practical knowledge education will has been important for some one hundred years after 'GahBo Education Reform(甲午教育改革)'. In this viewpoint, it is one hundred years to reform our traditional education focused upon human character(人格) into neo-education(新教育) emphasized on practical knowledge.

We have experienced excessive social change until now. Just after 'GahBo Reform (甲午改革)', our sovereignty was lost by Japan for thirty-five years. When we were on restoration of independence, we were in the competitive society of democratic capitalism based upon individualism. In the beginning of 1950s, we suffered the bloodily national tragedy of civil war. As the result of this, we had numerous lives' damage, and the land of our country was almost ruined as if it could never be recovered. However from the beginning of 1960s we had successively completed our 'Economic Development 5-year Plan' under the flag of "We will be rich.", and after all we made the miracle of the Han-river. In the latter of 1970s, our country has been developed into the modern industrialized, and national income has been increased so much that our country has approached the almost developed country in economic affluence. We and others have publicly estimated that our educational power has contributed to it. And yet we find the irrational phenomenon that our society deteriorates morally in proportion to the increasing of learned men and higher educated men. Though the cause of this paralogism may be various, if we recall our history, we can consider that our education being full of practical knowledge for the last one hundred years may be the main factor. It is a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May 31 Education Reform'(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Education Reform, 1995) is focused upon the fostering of human nature and the inducing of original thought.

Although 'May 31 Education Reform' is focused on fostering of human nature, we don't prepare for the specific plan about the theoretical and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that are related to inducing human nature. Therefore it seems that we have no clear idea on the theoretical and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about how to fostering human nature in our public education of democratic society with 'Church and State' and education divided. So it is believed that the HNE(心性教育) of our religion circles for our adolescents in these situation will be able to take good care of the paradoxical phenomenon that our society deteriorates morally, furthermore will largely contribute toward raising the quality of lives in our society. The theoretical and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the religion circles for HNE must be the precious cultural heritage and assets of mankind for HNE, which have distantly been accumulated since prehistory. As such, it is considered that the theories and reality of the religion circles for HNE will directly help establishing the general theories of public education for HNE, and developing the various methods for it.

However because the so-called teaching of the religion circles is relevant to a certain supernatural power like the above-mentioned, it needs to be associated with some modern scientific studies for its validity. Thus only in the case of academic backgrounds, the HNE of religion and education circles can develop with arranging its firm foundation, and if so, in the end it will realize the worthy life in our society through fostering a worthy man in religion and education circles. Really the academic results of some modern stud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human nature and mind have proved the validity of the theories and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for HNE in the religion circles. Therefore the major concerns in this paper are on the two following points that are connected with the HNE of religion and education circles. The first one concerns with the process of becoming a worthy man. The other is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human nature and the wisdom.

II. Relation between the Religious Teaching and the Becoming a Person

According to Socrates, arete(德) is the factor that makes human excellent. To use modern term, this is morality(德性).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aching of religion circles, it is goodness(仁), humaneness(慈悲), or love(愛). The common element of these is not intelligence, but humane mind of human being. So it may be the goal of religious education to cultivate their ideal morality and to establish the integration of character in any religious teaching. In Confucianism, 'a man of virtue(君子)' is one who has achieved the character integrated through goodness(仁), and in Buddhism the aim is the comprehending himself the very Buddha who is the incarnation of humaneness(慈悲), and in Christianity the regener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character through loving his neighbors. However it is not easy to establish character by fostering their ideal morality in the teaching of any religion. Though it may be said that the comprehending himself the very Buddha in Buddhism is very easy sometimes, the popular case may be the accomplishing their ideal character at the end of all sorts of hardship.

We regenerate with more developed character, undertaking the endeavor 'to make a martyr of oneself to acquire goodness(殺身成仁)' and 'to self-control for observing decorum(克己復禮)' in Confucianism, and suffering the adversity 'to take one step at last extremity(百尺竿頭進一步)' in Buddhism, and passing the process of repentance(悔心) in Christianity. On the authority of these, man is a regenerating-being like J. J. Rousseau' expression: birth in the first place so as to be biologically, and regeneration at the other time to live with character. So man is a duplex-being having both virtue and vice: the former is the good mind and feeling worthy of a human being, and the latter is the bad that schemes to interrupt the realization of goodness. This can be understood by 'self-controlling for observing decorum(克己復禮)', 'making a martyr of oneself to acquire goodness(殺身成仁)', the phantasm of worldly passion or the original

sin, and the temptation of Satan which are found in the teachings of the religious circles. Accordingly man is an enclosed being who is born with having simultaneously the inclinations of both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pole. So we must get over the bad feeling in our mind interfering the goodnes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character.

If it is seen that every theory of contemporary personality psychology is based on the polar tendencies of human nature(Hall, C. S. · Lindzey, G., 1970: 90) or if it is seriously observed what is our human nature itself, it can easily be found that man's mind is the being which has the human nature(inclinations) of conflicting(contrary to each other) positive and negative pole simultaneously. So theoretically we need to pass through the process of 'sacred-profane dialectics'(hardship ⇔ death ⇔ regeneration) which was illustrated by M. Eliade(Eliade, M. Dong-Ha Lee, trans 1983), to obtain consistently the character integrated with the good human nature. Also by synthesizing the academic results of development psychology, it can be found that human nature is qualitatively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of 'sacred-profane dialectics'.

Thanks to J. Piaget(Piaget, J. · Inhelder, B. Jae-En Kim trans., 1972 ; Flavell, J. H. Jae-En Kim · Myung-Sook Jeong trans., 1982), we are able to know that the development of man's mind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his body. The development of body is gradual, continuous, and successive with keeping on specializing and integrating quantitatively and functionally from the state of non-specialization, whereas the development of mind is intermittent, rapidly jumping up, and discontinuous with qualitatively transforming process despite following in sequential order.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body is similar to the growth of radish, while that of mind is similar to that of bamboo which is knottedly rising.

If mental contents are divided into 'cognition · affection · volition(知情意)' and the procedure of this is described, the tropism of development and growth will be from subjectivity toward objectivity in cognition(知), from egoism/self-love toward altruism/other-love in affection(情), and from heteronomy toward autonomy in volition(意). According to the tropism model of mental development, the final-state is what has

objectified the very oneself as the subject of consciousness in cognition, what has altruistically loved the others in affection, and what has autonomously become free in volition. Therefore the final-state of mental development seems to be a being to live autonomously an objectively altruism/other-love life(Keay-Hark Lee, 1991). If it is possible to be that man, he will be the very picture of love, the incarnation of humaneness, the most moral human that has internally integrated with goodness, and the man with character who lives worthy life.

According to the tropism model of mental development, we have got to overcome the life style of being subjective, egoistic, self-loving, and heteronomous, and to go into the condition objective, altruistic/other-loving, and autonomous at the final-state. That is, we must enter the qualitatively different state to regenerate the new desirable character through improving our human nature. However these two states are quite different qualitatively. So they are not naturally connected, but conflicting(contrary each other), exclusive, and heterogeneous just as it is understood in 'subjectivity-objectivity', 'egoism-altruism', 'selflove-otherlove', and 'heteronomy-autonomy' dimension. They are blocked by thick barrier that can not go in and out, as if the difference between subsonic and supersonic velocity. Thus they do not have any open natural passway. Therefore the move-in between them is breaking through or rushing into as though the entering from subsonic into supersonic velocity. So the final process of character formation has the special situation breaking through/rushing into(Bollnow, O. F., Gyou-Ho Lee, trans, 1967: 47~48), and this process contains the shocked and astounded which is following from momentary breaking through or rushing into. It is not difficult to suppose that the very experience is the attainment of salvation in consciousness, and a flash in the sense of sight, and a crash in sound.

The qualitative transition of mental state is the dialectical change which, at last, is attained by overcoming a psychologically conflicting(contrary each other) situation, and is the momentary opening that is going into mentally altruistic state from egoism, and is the formation of accommodating circuit in cerebrum nervous system instead of the

viewpoint formed by structurally two conflicting(contrary each other) circuits. The symbol seems to be the circle of Won-Buddhism, and a halo. So it is needed to pass through the process of 'sacred-profane dialectics'(hardship $\Leftrightarrow$ death $\Leftrightarrow$ regeneration) in any step of mental development. We can lastly find that it is needed to pass through the more difficult process of 'sacred-profane dialectics'(hardship $\Leftrightarrow$ death $\Leftrightarrow$ regeneration) so as to establish firmly the final accommodating character by integrating 'cognition · affection · volition(知情意)' with developing human nature.

As we are approaching to the above standpoint, 'integrating as one(一以貫之)', 'success in life(立身)', 'regenerating people(新民)', and 'spiritual awakening by integrating(豁然貫通)' in Confucianism, and 'awakening' in Buddhism, and 'regeneration(重生)' in Christianity, are all not the natural and smooth, but really quite 'self-controlling for observing decorum(克己復禮)', 'making a martyr of oneself to acquire goodness(殺身成仁)' in Confucianism, and 'taking one step at last extremity(百尺竿頭進一步)' in Buddhism. These are the hardship process that a little worm regenerates as a beautiful butterfly as in the tale written by T. Paulus(Paulus, Trina, Young-Moo Lee · Hongdollores, trans, 1978). As watched, these are not different from the bear-woman tale in the Korean founder myth(Tangun-myth) who had wished to be a human in life and in the end became a worthy woman after having overcome the bitterness as a mugwort, the hot taste as a garlic, and the dismal as a cave, just as a chicken is hatched from its egg only after 3×7 days. And also ShimChung(沈淸)-tale is not different, who was a daughter of a humble blind Mr. Shim, drew herself into 'In-Dhang sea area', and afterwards 'succeeded in life(立身)' as the character of queen.

According to the above, we come to understand how difficult is it to become a worthy man, namely, to establish the integrated character with morality after having been born as a son or a daughter of people. Moreover we come to see why most people live in the world with remaining in the level of relativity as the incomplete state of both 'half animal or thing' and 'half-man', with going in and out between

these states and being in the conflicting(contrary each other) hardship. Also we come to know that we never establish the integrated character with morality without having the preparation 'to self-control for observing decorum(克己復禮)' and 'to make a martyr of oneself to acquire goodness(殺身成仁)', and without having strongly the passion and the belief 'to take one step at last extremity(百尺竿頭進一步)'. And also we come to grasp freshly not only why it is difficult to do the character education with losing religious nature in school, but also that the merit of the HNE of religion circles for our adolescents can be found in the very belief.

III. Relation between Establishment of Character and Wisdom

According to the tropism model of ment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cognition · affection · volition(知情意)' follows basically the process of 'sacred-profane dialectics'. However by means of the route of character formation above mentioned, we can find that a important resolution must be made in the final-state establishing the qualitatively changed character by integrating 'cognition · affection · volition(知情意)': whether we live easily and roughly in the world with remaining in the level of relativity as the incomplete state of both 'half animal or thing' and 'half-man', with going in and out between them, with being in the conflicting(contrary each other) hardship, or we live enjoying the worthy living as worthy men owing to establishing the integrated character after having been born as a son or a daughter of people. But in the latter, the most crisis in life span will be overcome by 'taking one step at last extremity(百尺竿頭進一步)'. So YulGok(栗谷) proved 'fixing one's aim in life(立志)' the most important prior to learning(knowledge). And by quoting the ancient emperors Yo & Soon(堯舜) as the model of worthy men, he emphasized both of them people and also us people(Lee Lee. *GyergMongYoGyerl*. Chap. fixing one's aim in life) This

seems to have insisted the resolution to become a human being. Two foundational conditions for this resolution are the belief on the process establishing character and the passion on desiring to become a worthy man. If there is the belief and isn't the passion, or if there is the passion and isn't the belief, it will be useless. So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two supporting posts for 'fixing one's aim in life(立志)'.

However common people will fear the process accomplishing their ideal character at the end of all sorts of hardship, and will hope to remain indolently in an ordinary way. So with disbelief they will try to degrade 'the process becoming a human being' as mysticism, and also in egocentricity to defend and soothe themselves with regarding the incomplete state both 'half animal or thing' and 'half-man' as the normal standard. And yet this standard is not qualitative, but quantitative. Therefore this is nothing but self-deception.

According to E. H. Erikson(Erikson, Erik H., 1982) who note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go, man will dialectically have developed till after fifty-year-old through eight stages as follows: 'basic trust vs. basic mistrust' in oral-sensory, 'autonomy vs. shame and doubt' in muscular-anal, 'initiative vs. guilt' in locomotor-genital, 'industry vs. inferiority' in latency, 'identity vs. role confusion' in puberty and adolescence, 'intimacy vs. isolation' in young adulthood, 'generativity vs. stagnation' in adulthood, and 'ego integrity vs. despair' in maturity. At last as ego is integrated in maturity, man comes to obtain excellent wisdom.

According to A. H. Maslow's(Maslow, Abraham H., 1970) motivation theory concerned with development, man has the inborn tendency to develop. So if he has well realized this tendency, he will remain healthy, but if not, he will suffer from mental disorder such as neurosis personally. In his motivation theory, the flow of needs is as follows: 'physiological needs' ⇔ 'safety needs' ⇔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 'esteem needs' ⇔ 'cognitive needs and aesthetic needs'. As the last need is fulfilled, 'the need for self-actualization' appears finally. The people who have established character in the last stage of character development will experience ecstasy,

will be in intimate human relations with others beyond egocentricity, and will be humorous and wise.

Erich Fromm said that man is torn between two tendencies since the moment of his birth: the one is to emerge to the light, and the other is to regress to the womb. Thus man is a confused being. Fromm regarded man's orientation for life as the structure of extremes such as 'love of life and love of death' and 'growth and regression'. He explained the dynamic concept of mind in the dimension of 'progression and regression' with dividing people into the syndromes of growth or decay (Fromm, Erich, 1980: 98; 114).

As synthesizing the above, man has the elementary need to become a human being, and if he overcomes dialectically the conflicting (contrary each other) tendencies and develops his human nature, he will establish his character and obtain wisdom, but if not, he will not remain in his stagnant place and show deterioratively the mental disorder in his mind. In short, he must pay for his cause. For example, a tree can straight grow but for any obstacle. However if any, it will stop its growth, and will be twisted. This is similar to the saying that as you make your bed you must lie on it.

According to the above, in the final process of character formation, man will encounter the dramatic situation on which he must decide. At this time, if he turns away from becoming a worthy human being, he will be unhappy as far as he does so. And then he shall live a stupid life as if he was mentally sick. Evidently we will feel the satisfaction as much as we experience the living worthy of a human being, and will keenly realize that nothing is more unfortunate than not living as a worthy man. So his duty is the accomplishing the condition to be a worthy man, which seems to be the factor of happiness as a human being.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other reason why human character is accomplished, which can be found in the above. It is that when man accomplishes his character he comes to obtain excellent wisdom.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great teachers in history of the mankind, they have informed us of the fact that as man accomplishes

the integrated character through fostering morality he can also obtain excellent wisdom. In the teaching of Buddhism, it is very obvious. The BahnYaShimKyung(般若心經) which seems to be a heart of Buddhism, is the sacred book having summarized the core of six hundred grand-BahnYaKyungs(般若經) as only two hundred sixty Chinese characters. The original name of it is Ma-Ha-Bahn-Ya-Ba-Ra-Mill-Da-Shim-Kyung(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Ma-Ha(摩訶) is the Sanskrit word meaning very excellent. Bahn-Ya(般若) is wisdom, and Ba-Ra-Mill-Da(波羅密多) means 'go over the hill' or 'arrive at the hill'. Shim-Kyung(心經) is the Bible for our mind. So MaHa+BahnYa+BaRaMillDa+ShimKyung(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is the sacred book attaining to the very excellent wisdom by culturing our moral mind. Therefore we can obtain excellent wisdom, only if we realize ourselves Buddha with following the teaching of this Bible. According to the words of ImJae-priest(臨濟禪師), Buddha is the very 'true-human in a certain equal level due to his excellently cultured mind(無位真人)' (Yanakitaseizahn, ILZi, 1990: 66~67). So if only we realize the great fact that we are not any other being but the very human beings, we can come to obtain wisdom. Because of this, the teaching of Buddhism is very philosophical.

In the Greece thought, we can also find the words of the same context. The word philosophy means the study that is not for 'love of knowledge' but 'love(philia) of wisdom(sophia)'. Socrates said, "The philosophers are the people loving not some part of wisdom but all of it"(Plato, The Learned Society for Social Science, 1967: 69). Also when he was asked "Who is true philosopher?", he said, "He is a human loving all the truth"(Plato, The Learned Society for Social Science, 1967: 70). The reason they were extremely concerned with the virtuous(moral) education, is that virtue(morality) is the very wisdom and the factor which makes us worthy men and very excellent beings. The Socrates' proof that virtue(morality) is the very wisdom is as follows.

If then virtue is an attribute of the spirit, and one which cannot fail to be beneficial, it must be wisdom, for all spiritual qualities in and by themselves are neither advantageous nor harmful, but become advantageous or harmful by the

presence with them of wisdom or folly. If we accept this argument, then virtue, to be something advantageous, must be a sort of wisdom.

So we may say in general that the goodness of non-spiritual assets depends on our spiritual character, and the goodness of that on wisdom. This argument shows that the advantageous element must be wisdom, and virtue, we agree, is advantageous; so that amounts to saying that virtue, either in whole or in part, is wisdom(Plato,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1982: 373~374).¹⁾

Plato was the successor of Socrates' virtue theory that virtue(德) is wisdom(智慧), and he developed it into Idea theory. Plato said that we must pass four steps to reach true-knowledge from ignorance: eikasia(hallucination knowledge), pistis(belief knowledge), dianoia(medium knowledge), and noësis(intuition knowledge). In arriving at the last, we get to the state of true knowledge, that is, wisdom, and we can realize virtue(morality). This final state is the intuition level to be able to reach after having overcome all the hardship, and it is the state of pure thinking in which we can directly see the real substance of everything(Jong-Hyern Park, 1983: 25~26). According of the above explanation about the idea of goodness(善), the utmost goodness(至善) is the ground of knowledge and truth.

The fundamental teaching in Confucianism is the fact that "Wisdom is acquired in the utmost Goodness(至善)." At the beginning of Great Learning(大學), it is written that "The Tao(道) of virtuous man is in enlightening 'the bright morality(明德)', in 'regenerating people(新民)', and in staying at 'the utmost goodness(至善)'"(Back-Hyo Sung. trans.-note, Toh Hyern. trans., Great Learning: 23)²⁾ In here, 'The bright morality(明德)' means wisdom as 'unclouded mind and preception(虛靈知覺)'. And 'wisdom', 'utmost Goodness' and 'regenerating people' are all equal. So we come to know that wisdom and morality(virtue) are the same as both sides of coin. If we are remaining in 'the utmost goodness(至善)' by fostering morality, we will become

1) These are Socrates' sayings from the dialogue between Socrates and Meno in "MENON".

2) "大學章句大全 其一",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親)民 在止於至善"

'regenerated people(新民)', and if we have done so, we will acquire excellent wisdom and then will be in 'the Tao(道) of virtuous man'. And also there is the words '不仁不智(If not goodness, not wisdom.)' in Mencius(孟子), and the note of it is "以不仁故不智, 不智故不知禮義之所在(Because of no goodness, not wisdom; and because of no wisdom, never know what is decorum)"(Hyerg-Zeh Kim, 1984: 91). This also means the fact that "If not goodness, not wisdom." There is the implicative phrase in NohnEr(論語) which means that "if the integrated character is accomplished by goodness, the wisdom of 'innate moral sense and natural endowments(良知良能)' will be acquired."

Confucius(孔子): ZahGong! Do you know why I have understood all the things is by having learned (and memorized) much?

ZahGong(子貢): Sure. Isn't it?

Confucius(孔子): No, it isn't. I have only been integrated[by goodness 仁])(NohnEr. 里仁15).³⁾

From this, we can see that, if the character integrated with goodness by cultivating morality is accomplished, the wisdom of 'innate moral sense and natural endowments(良知良能)' will be acquired which is the thing that 'even if we may not learn, we can know and do.' The Mencius(孟子)'s 'innate moral sense and natural endowments(良知良能)' theory, was succeeded to the 'mind philosophy(心學)' of Wang Yang-Ming(王陽明), and developed into 'the theory of realizing innate moral sense(致良知說)'. 'The theory of realizing innate moral sense(致良知說)' is a method of fostering our mind, that is, a methodological principle of upbringing morality. And 'Learning Yi(理) with being in reverence(居敬窮理)' was emphasized as the methodology of character education and that of 'cultivating mind by natural principles(格物致知)', by Chu Hsi(朱子) who systematized the Chinese Dualistic Philosophy(性理學). And according to ToeGae(退溪) having firmly established the philosophy of reverence(敬), 'reverence(敬)' is the lord of

3) "子曰 賜也 女以予 爲多學而識之者與 對曰 然 非與 曰 非也 予 一以貫之"

mind(ToeGae. *SungHarkShipTao*, chap. 大學經; chap. 心學圖),⁴⁾ and if being in reverence, wisdom will be bright and Yi(理) will thoroughly be learned(JooHee, Kwang-Soon Tao, trans., *GnSahRok* chap. 格物窮理篇 11).⁵⁾ And he emphasized 'the method of coming near to reverence(持經敬)' as a methodology of character education(人格教育) and one of learning Yi(理). According to ToeGae(退溪)'s explanation, reverence(敬) is nothing but the mind at once respectful and fearful(ToeGae. chap. 夙興夜寐箴圖),⁶⁾ and 'the method of coming near to reverence(持敬法)' is a methodology of cultivating morality in a broad meaning.

It seems that, in the wisdom theory in Christianity, the relation between 'wisdom(智慧)' and 'the mind both respectful and fearful(敬畏心)' is the same as both sides of coin. According to The Proverbs and The Psalms that are the wisdom book in Christianity, the source of wisdom is the respectful and fearful mind for our Lord, Jesus. So it seems that its fundamental teaching is that we can acquire as excellent wisdom as Solomon through cultivating 'the mind both respectful and fearful(敬畏心)' toward our Lord.

With the above passage, we will come to know that morality(virtue) and wisdom are the same as both sides of coin, and that as man accomplishes the integrated character through fostering morality he will obtain excellent wisdom, and then we can acquire a keen eye of having an insight for true knowledge, and so that we will live enjoying the worthy living as worthy men. So we can now understand why the past scholars made efforts to foster character, not to study intellectual knowledge. We'll be surprised at seeing the fact that, with bearing no relation to times, the past theories coincide with the contemporary theories of developing character. So it may be as a matter of course that lately the fourth psychology(the transpersonal psychology) is very interested in the Oriental thought.

4) “敬者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一身之主宰而敬 又一心之主宰也”

5) “只是致知 若智識明 則力量自進”

6) “以上五圖 原於心性 而要在勉日用崇敬畏”

IV. Conclusion

I have expressed my thought on two questions related with character education, having been regarded as endless questions(話頭) for years. It is felt that the rapid jumping of my logical flow seems to be frequent, because of summarizing the questions to be needed to discuss much in restricted space. However, I hope that these questions will be developed into the more general principles of character education through wide discussion with many experts of religion education. At least we will have to make this study-field not to be ashamed at all, by not reimporting from Western scholars. From the 21st century on, we must get out of the debts from the West on our academic field.

< Reference >

- Back-Hyo Sung. trans.-note, Toh Hyern. trans., Great Learning(大學)
- Bollnow, O. F., Gyou-Ho Lee(1967). trans.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Seoul: BaeYoungSah.
- Eliade, M. Dong-Ha Lee(1983). trans.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Seoul: HarkMinSah.
- Erikson, Erik H.(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lavell, J. H. Jae-En Kim · Myung-Sook Jeong(trans.)(1982). *Cognitive Development*. Seoul: JeongMinSah.
- Fromm, Erich(1980). *The heart of man - Its genius for good & evil*.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Hall, C. S. · Lindzey, G.(1970).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Hyerg-Zeh Kim(1984). revision. *The Original Variorum Edition of Mencius*(原本孟子集

- 註傳). Seoul: MyungMoonDhang.
- Jong-Hyem Park(1983). *The life and thought of PLATO, Republic and Phaidon*. Seoul: HyuMoon Publishing Co.
- JooHee(朱喜). Kwang-Soon Tao. trans. *GnSahRok*(近思錄).
- Keay-Hark Lee(1991). *The theory of character education*. Seoul: SungWonSah.
- Lee Lee(李珥), *GyergMongYoGyerl*(擊蒙要訣), Chap. fixing one's aim in life(立志).
- Maslow, Abraham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NohnEr*(論語).
- Paulus, Trina. Young-Moo Lee · Hongdollores(1978).trans., *Hope for the flowers*. WaeGwan: BoonDo Publishing Co.
-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Education Reform(1995), *Education Reform Plan for Establishing New Educational System leading to Internationalization & Information Ag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Education Reform, the 2nd report, May 31 1995).
- Piaget, J. · Inhelder, B. Jae-En Kim(trans.)(1972). *La Psychologie de L'enfant*. Seoul: IkMoonSah.
- Plato, The Learned Society for Social Science(1967). ed., trans. *Republic and symposium*. Seoul: ShinZoMoonHwaSa.
- Plato,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1982). ed. Lane Cooper et al. trans. *PLATO: The collected dialogues*, Bollingen Series LXX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e Variorum Edition of 'Great Learning' and 'Doctrines of Mean'* (大學中庸集註).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d.(1991). *The Grand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vol. 20 (Su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ToeGae(退溪), *SungHarkShipTao*(聖學十圖).
- Yanakitaseizahn, IlZi(一指)(1990). rans. *Priest ImJae's Savings*(臨濟錄). Seoul: KoRyerWon.